

“신속·정확·친절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 높인 2년”

**민선 8기 2주년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소통 중심 주민친화적 행정 펼쳐
서구형 통합돌봄 정책 전국 확산
저예산·고효율 ‘착한정책’ 호평**

민선 8기 출범 2년을 맞이한 광주 서구는 복지, 경제, 행정 등에서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면서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신속·정확·친절한 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치면서 착한 서구민들과 함께 따뜻한 생활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회했다.

먼저 서구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중심에 둔 의료·돌봄 통합정책을 시행 중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2022년 7월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하고 관내 의료진들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찾아가는 방문 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500여 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서구의 성공 사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26년부터 지자체들이 통합돌봄 정책을 의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1명당 매년 30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아픈 가족들을 돌보느라 학업, 직장 등을 포기한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서구만의 ‘착한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구는 친절한 민원 응대 서비스로 ‘착한행정’도 펼치고 있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도입한 구청장 직통 문자폰 ‘바로문자하랑께’가 신속·정확한 소통창구로 자리잡았다. 2022년 8월 개통 후 22개월간 5000건에 달하는 민원에 신속·정확하게 응답하며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또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구청 민원실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등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친절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2022년 10월 평균 67.5점이었던 친절지수가 1년5개월만인 올해 3월 평균 93.5점으로 크게 향상되며 은행이나 대기업 서비스센터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구만의 저예산 고효율 정책들도 주목받고 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광주 서구 제공

서구는 2022년 풍암호수공원 세족장 설치를 시작으로 맨발로(路)를 확대해 올해 4월까지 18개 동 전체에 24개의 맨발로를 조성했다. 특히 맨발로 조성 사업은 근린공원, 학교 운동장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예산 부담을 줄였다.

서구의 공유주차장 사업도 저예산 고효율 대표정책 중 하나다. 서구는 지역의 가장 큰 민원 중 하나인 주차난을 ‘공유’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주차장을 활용해 공유주차장 2100여 면을 확보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서구 관내 학교 9곳이 학교 개방에 적극 협조하면서

238면의 주차장을 확보, 3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천원국시는 서구를 대표하는 착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리밀 소비 촉진, 그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천원국시는 양동을 시작으로 현재 6호점까지 문을 열었다. 양동전통시장을 비롯해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원룸촌, 청소년 시설 밀집지역, 고령친화마을 등에 매장을 열어 지역과의 상생을 꾀하고 있으며 매장 안에 누구든지 음식을 채워넣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나눔냉장고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구는 지역 전체를 대학 캠퍼스로 만들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세큰대)’도 10개 학과 10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마을 도서관과 카페를 강의실로 활용, ‘5분거리 학습권’을 조성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눈에 띄는 성과와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주민들의 적극참여가 큰 동력이 됐기 때문이다”며 “착한사람들이 행복하고 착한가게가 번창하며 착한기업이 성공하는 따뜻한 생활정부를 완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nilbo.com

**‘골목상권 미식 브랜딩 아카데미’
광산구, 10일까지 교육생 모집**

광주 광산구는 오는 10일까지 ‘골목상권 미식 브랜딩 아카데미’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광산구에 사업장을 둔 식품접객업(요식업) 영업자 30명이다.

아카데미는 7월부터 9월까지 9주 과정으로 매주 1회 3시간씩 광산구 지역경제 활력센터 2층에서 진행한다.

교육은 △요식업 경영철학 △식당 미래 전략 및 브랜딩 △상권분석과 온라인 마케팅 전략 △선진지 견학 등 이론·실습을 통합한 전문교육기관의 특화 과정으로 구성했다.

첫 교육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광주형 미식브랜드·외식경영마인드를 주제로 열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광산구청 3층 시민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메일(rooify@korea.kr), 온라인폼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생 선정 결과는 12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산구 시민경제과(062-960-3878)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

**북구, 주민 건강 증진 ‘최우수’
지자체 건강증진사업평가**

광주 북구가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를 활성화해 주민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포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한 기관을 포상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유도하고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평가다.

올해 평가에서는 전국 243개 시·군·구 보건소의 지난해 통합건강증진사업추진 결과와 사례를 성과평가위원회가 평가해 34개(최우수 16개, 우수 18개)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건강 위험 요인에 적합한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 받았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3년간 추진한 △구강건강 종합 서비스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내 손안에 구강보건센터 △아동 치과 주치의 등 ‘구강건강 리부트 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른 구강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치아 건강을 증진한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에 북구는 광주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됐고 포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8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 건강증진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지난해 열린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출범식. 광주 남구가 추진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다. 광주 남구 제공

남구에 도착한 따뜻하고 애달픈 ‘소원 편지’

**‘한여름 크리스마스 편지’ 접수
할머니·장애 엄마 챙긴 아이들**

광주 남구 관내 취약계층 아이들의 소망을 담은 ‘한여름 크리스마스 편지’ 60여 통이 구청 소원 편지함에 도착했다.

남구는 관내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추진한 한여름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최근 구청 복지정책과에 아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편지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각각의 편지에는 심금을 울리는 사연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애달픈 내용이 가득했다.

한 초등학교생은 받고 싶은 물품이 있음에도 저녁마다 다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안마기를 꼭 갖고 싶

다는 소원을 적었다. 피아니스트가 꿈인 한 아이도 청각 장애 어머니를 위한 소원 편지를 보냈다. 비록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자신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즐거워해서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곡을 꼭 피아노로 연주하고 싶다고 학원 수강권을 요청했다.

할머니 간병을 위해 3대가 모여 사는 가족의 한 아이는 외식 상품권을 받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간호하고 보호해 줘야 할 상황이어서 마음 편히 외식하지 못했다며 고생하시는 부모님과 아프신 할머니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이들의 소원 성취는 오는 8월에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한 물품을 이달 말까지 모두 구입해 오는 8월부터 각 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선물 전달에는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17개 동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함께하며, 이들은 산타 복장으로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줄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편지에는 애달픈 사연도 많고, 아이들의 마음 씩씩이가 너무 곱고 예쁜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원 등에 관한 문의는 남구 복지정책과(607-3341)로 연락하면 된다.

박찬 기자



**행복학교 추진을 위한 MOU
서구-꿈틀리**

광주 서구는 사단법인 꿈틀리와 지난 4일 신안군 섬마을 인성학교에서 ‘서구 행복학교’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 행복학교는 자신의 적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청소년과 그 부모를 지원하는 아동친화사업이다.

이날 양 기관은 △서구 행복학교 행복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과 운영 △서구 행복학교 활성화를 위한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와 호이스콜레의 운영철학 공유 및 교육자원 공동 활용 △기관의 발전과 지역사회 행복 확산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학습 이외의 자아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그 양육자를 위한 사업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다 (사)꿈틀리를 만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데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